

남자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발달과 음주문제의 관계

신 행 우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N=175)의 정체성 발달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정체성 지위(혼미, 폐쇄, 유예 및 성취) 집단에 따른 음주관련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확인해 본 바, 음주문제의 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체성 유예지위 집단은 음주문제의 정도가 가장 심한 위험 집단이며, 정체성 성취지위 집단은 상대적으로 음주문제가 덜한 집단이었다. 또한 각각의 정체성 지위 집단마다 음주문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주동기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음주문제를 기준으로 문제성 음주집단과 비문제성 음주집단을 구성하여 이를 집단간 정체성 내용 영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문제성 음주집단은 관념-혼미, 관념-유예 및 대인-유예에서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관념-성취에서는 비문제성 음주집단이 문제성 음주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끝으로 정체성 발달과 음주문제간의 관계에서 일어진 시사점과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발달 자산 접근(the developmental assets approach)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체성 지위, 음주동기, 음주문제, 발달 자산 접근

정체성 형성 즉,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로서의 자기감(a sense of self)을 형성하는 것은 청년기 후기와 초기 성인기 동안의 발달과업이다(Erikson, 1963, 1968). 따라서 대학시절은 정체성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학업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 자기감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의 의견과 생각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청소년들은 개인적 가치, 목표, 관심 및 주변 세계를 조사하여 내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내적 구조를 통해 그들은 자신을 독특한 한 개인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부로 이

해할 수 있게 된다(Marcia, 1966).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시절동안 개인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성인기 삶을 창조하고 직업선택을 탐색한다(Kenny & Rice, 1995). 이와 같은 탐색의 과정을 거친 후 결국 개인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확고한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대학시절은 본격적인 음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술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만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통스런 현실로부터의 도피수단으로 또는 사교의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술로 인해 야

교신저자: 신행우, E-mail: hwshin@woosuk.ac.kr

기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들이 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의 정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조사(Gliksman, Adlaf, Demers, & Newton-Taylor, 2003; Preboth, 2002; 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 Wechsler & Isaac, 1992; 장승옥, 윤혜미, 이해경, 최현숙, 2001;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고복자, 정재훈, 박종순, 2000)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무선표집 조사에서 지난 2주 동안 한번에 맥주 5병 이상(여학생은 4병 이상)을 마신 적이 있는 학생들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echsler 등, 1994). 이는 대학생이 아닌 같은 또래의 음주율(36%)에 비해서도 더 높은 비율이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약 20%의 대학생들이 지난 2주 동안에 3번 이상 폭음(binge drinking)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의 대학생 음주에 대한 실무팀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음주로 빚어진 결과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이다. 실무팀은 18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음주로 매년 약 1400명의 사망자와 약 5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약 7만 건의 성범죄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25% 이상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Preboth, 2002). 이와 같은 대학생 음주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일찍이 미국의 전국 대학교 총장들은 그들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약물남용 특히 알코올남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0; Wechsler & Isaac, 1992에서 재인용).

우리 나라 대학생의 경우도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비록 전국 단위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장승옥 등(2001)에 의하면,

조사 대상 남자 대학생들 중 96.8%가 현재 음주자로 나타났다. 또 서울 소재 남녀대학생 1280명을 대상으로 한 천성수 등(2000)의 조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의 월간 음주율이 94.4%, 일주일에 2~3회 이상 음주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32.1%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남학생은 4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대학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직업, 정치적 신념, 대인관계에서의 역할, 여가 활동, 생활방식 등의 선택을 위한 탐색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시절 동안, 대학생들 사이에 아주 만연해 있는 음주는 정체성 발달과정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Jones와 Hartmann(1988)은 정체성 발달을 다룬 연구들과 물질사용 및 남용을 다룬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특정의 가족 특징, 성차 등의 변인들이 정체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들 변인들이 물질사용 및 남용과도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아 정체성 개념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정체성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Marcia(1966)의 체계를 사용해왔는데, Marcia의 체계에서 정체성 형성은 탐색과 관여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탐색은 개인이 이전의 선택이나 신념, 동일시에 의문을 품고 대안들과 관련된 정보나 경험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관여는 역할들과 이상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Marcia, 1968).

그리고 위기의 경험 여부와 관여의 여부에 의해 네 가지 정체성 지위가 도출되는데, 이론적으로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체성 관련 영역들에서의 탐색과 관여의 수준에 따라 정체성 혼미에서 정체성 폐쇄로 그 다음에는 정체성 유예로 그리고

결국에는 정체성 성취로 나아간다. 먼저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는 정체성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도 않고 또한 관여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Marcia, 1966). Logan(1978)은 정체성 혼미지위의 청소년들이 미해결의 정체성 문제들로 야기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방어기제에 의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음주는 이들이 경험하는 권태, 우울,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체성 폐쇄(identity foreclosure)는 정체성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정체성 폐쇄 지위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 준 목표나 신념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Marcia, 1980; Meeus, 1996). 이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권위적 인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 거의 없으며, 이들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은 동조, 보수주의, 복종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음주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해서 음주를 자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과음을 하는 중요한 타인들과 조기에 동일시하고 음주를 부추기고 권장하는 사회적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고 남용 상태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는 정체성 위기의 한복판에 서서 현재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 중에 있으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애매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Marcia, 1993; Meeus, 1996). Marcia(1980)의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 유예지위에 있는 젊은이들은 아직 목표나 가치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불안이 고조될 수 있고,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체성 탐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술을 찾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주를 매개로 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우정이나 이성교제, 성 역할 등의 대인 정체성 탐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성

취(identity achievement)는 적극적인 탐색의 시기를 거친 후 특정한 정체성 요소들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Meeus, 1996). 정체성 성취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행동, 역할 및 관념의 대안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불확실성을 이미 경험했고 또 그 결과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특별히 음주와 관련된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절은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음주를 시작하고 또 본격적으로 음주를 시작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청년기의 발달과 업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서로 맞물려 있어, 자아 정체성 발달과 음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정체성 발달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생 음주문제의 예방을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정체성 발달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려 했던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Jones와 Hartman(1988)은 자아정체성 지위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음주경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정체성 폐쇄 지위의 청소년들이 다른 정체성 지위에 있는 동료들에 비해 음주경험의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ones, Hartmann, Grochowski와 Glider(1989)는 물질남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임상 집단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또래의 비임상 청소년 집단의 자아정체성 프로파일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임상 집단은 비임상 집단에 비해 관념 정체성 영역에서는 유의하게 더 높은 폐쇄지위 점수와 유의하게 더 낮은 성취지위 점수를 보였으며, 대인 정체성 영역에서는 유의하게 더 높은 혼미지위 점수와 폐쇄지위 점수 그리고 유의하게 더 낮은 성취지위 점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비록 음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었지만 정체성 지위들 중 정체성 폐쇄지위가 음주빈도가 가장 낮았다는 Jones와

Hartman(198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정체성 폐쇄 지위도 문제성 있는 물질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Bishop, Macy-Lewis, Schnekloth, Puswella와 Strussel(1997)은 기존의 두 연구에서 음주에 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음주빈도와 음주량 둘 다를 수량화할 수 있는 음주 측정치를 사용하여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아 정체성 발달 정도와 음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체성 성숙도와 맥주 소비수준간에는 역의 직선적 관계가 있었다. 즉 맥주 소비량과 음주빈도는 정체성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체성 혼미와 정체성 폐쇄 수준의 대학생들은 맥주를 과음하는 반면 유예 수준의 대학생들은 비교적 적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외적으로 정체성 성취 지위에 있는 대학생들은 중간정도 수준의 맥주소비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정체성 발달과 음주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모두 법정 음주 허용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는데, 음주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제약도 받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체성 발달과 음주간의 관계 양상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도 제각각이었고, 음주관련 변인으로 음주빈도나 음주량만 다루었을 뿐 음주문제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발달과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 등 음주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자대학생들의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

주동기 및 음주문제의 정도가 개인의 자아정체성 지위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2. 자아정체성 지위 집단에 따라, 음주문제 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주동기가 다른가?

연구문제 3. 문제성 음주집단과 비문제성 음주집단은 자아정체성 영역별 지위점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3개 대학과 지방 소재 1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자대학생들로 지난 3개월 동안 최소한 1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17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175명 중 1학년이 48명(27.4%), 2학년이 24명(13.7%), 3학년이 43명(24.6%) 그리고 4학년은 60명(34.3%)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범위는 18~27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2.6세(표준편차: 2.66)였다.

측정도구

자아정체성 지위

자아정체성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Bennion과 Adams(1986)가 최종 개정한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 확장 개정판(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2)을 신행우(2001)가 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다.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EOM-EIS2는 Likert 식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EOM-EIS2는 관념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과 대인 정체성(interpersonal identity) 그리고 이 둘을 합하여 전체 정체성(total ident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념 정체성에는 직업(occupation), 종교(religion), 정치(politics) 및 철학적 생활양식

(philosophical life-style) 등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인 정체성에는 우정(friendship), 이성교제(dating), 성 역할(sex roles) 및 여가활동(recreation) 등의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EOM-EIS2는 전체 8개 영역 각각과 관련된 8개씩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8개 영역 각각에는 네 가지 정체성 지위(성취, 유예, 폐쇄, 혼미) 각각에 해당하는 2개씩의 문항들이 있다. 신행우(2001)가 보고한 전체 정체성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0~.87의 범위였으며,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76\sim.83$ 의 범위였다.

음주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점 척도(0: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 6: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평균주량

1회 평균주량을 알아보기 위해 술을 한 번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하게 하였는데,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12개의 선지(0:전혀 안 마심 ~ 11:5000cc이상)를 주고 그 중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맥주의 양을 하나 고르게 하였다. 그리고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에는 그 양을 직접 적게 한 후, 나중에 연구자가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맥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동등한 단위가 되게 변환하였다.

음주동기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와 한성열(1999)이 제작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음주동기척도는 고양, 대처, 동조 및 사교의 네 가지 음주동기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음주동기들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들로 표현되어 있다. 응답은 각 문항이 가리

키는 음주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5점 척도(0:전혀 마시지 않는다 ~ 4:거의 항상 마신다) 상에서 평정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음주동기 각각의 점수 범위 : 0~16점). 그리고 음주동기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6~.89의 범위로 보고되었다.

음주문제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행우(1999)가 만든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 즉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이 가리키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음주문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4였다.

결과

각 개인의 정체성 지위 수준에 따른 음주관련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Adams, Bennion과 Huh(1989)가 제시한 일련의 규칙에 따라 관념정체성 영역과 대인정체성 영역을 합친 전체정체성 영역의 지위점수들을 사용하여 정체성 지위를 분류하였다. 그런데 Adams 등(1989)이 지위분류의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제시한 ‘지위 점수 평균 + 1SD’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신행우(2001)가 제안한 방법을 지위분류에 적용하였다. 즉 일단 Adams 등(1989)이 제시한 절단점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한 후,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집단만을 대상으로 덜 엄격한 절단점(지위 점수 평균 + .67SD)을 사용하여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혼미 36명, 정체성폐쇄 34명, 정체성유예 26명, 정체성성취 34명 및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45명의 집단이 구성되었다.

정체성 지위 집단별 음주관련 변인의 차이 검증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의 정도가 정체성 지위에 따라 다른지(연구문제 1)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음주관련 변인들에 대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단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집단은 기준연구에서 다소 이질적인 속성들이 혼재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표 1),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에서는 정체성 지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동기와 관련해서는 고양동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3,126) = 2.78$, $p < .05$,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정체성유예 집단이 정체성성취 집단에 비해 고양동기가 더 높은 경향성($p=.067$)을 보였다.

그리고 음주문제에서는 정체성지위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126) = 4.34$, $p < .01$. 사후검증 결과, 정체성유예집단은 정체성성취 집단에 비해 음주문제의 정도가 유의하게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정체성폐쇄 집단도 정체성성취 집단에 비해 음주문제의 수준이 더 높은 경향성($p=.073$)을 보였다.

정체성 지위 집단별 음주동기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언력

각각의 정체성 지위 집단 내에서 어떤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대해 예언력을 가지고 있는지 즉, 정체성 지위 집단에 따라 음주문제를 좀 더 잘 예언해주는 음주동기가 다른지(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음주동기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음주문제 점수를 준거 변인으로 삼아 정체성 지위 집단별로 따로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언 변인인 음주동기들 간에 .31 ~ .57 사이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거 변인별로 중다 회귀 분석을 할 때마다 예언 변인들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았는데, 준거 변인들 각각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표 2), 정체성 혼미지위 집단에서는 음주동기들 중 대처동기가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대처동기는 음주문제 변산 중 1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폐쇄지위 집단의 경우에는 고양동기와 대처동기가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는데, 고양동기가 보다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서 음주문제 변산의 44%를 설명해주었고, 대처동기도 7%의 설명량을 더해 주었다. 그리고 정체성 유예지위 집단에서는 음주동기들 중 동조동기만이 유의한 예언

표 1. 음주관련 변인들에 대한 정체성 지위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①정체성혼미 (N=36)	②정체성폐쇄 (N=34)	③정체성유예 (N=26)	④정체성성취 (N=34)	F	사후검증
음주빈도	2.89(0.89)	3.32(0.88)	3.35(1.06)	2.91(0.93)	2.33	
평균주량	6.03(2.55)	6.26(2.53)	6.73(2.60)	5.82(2.29)	0.72	
고양동기	4.94(3.63)	5.65(2.99)	6.81(3.30)	4.53(2.95)	2.78*	③>④†
대처동기	5.36(4.24)	6.03(3.87)	7.31(3.98)	5.09(4.04)	1.73	
동조동기	7.56(3.74)	6.91(3.69)	7.58(2.96)	6.03(2.93)	1.52	
사교동기	10.58(3.39)	9.74(2.61)	11.00(2.67)	9.50(2.58)	1.87	
음주문제	12.75(10.86)	16.97(13.75)	19.08(10.74)	9.68(9.06)	4.34**	③>④*, ②>④†

* $p < .05$, ** $p < .01$, 사후검증 † $p < .10$

표 2. 정체성 지위 집단별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동기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정체성 지위 집단	예언변인	β	ΔR^2	R^2	F
정체성 혼미 집단	대처동기	.38	.15	.15	5.81*
정체성 폐쇄 집단	고양동기	.46	.44	.44	25.49***
	대처동기	.33	.07	.51	4.29*
정체성 유예 집단	동조동기	.63	.40	.40	16.02**
정체성 성취 집단	대처동기	.51	.38	.38	19.80***
	사교동기	.38	.14	.52	8.53**

* p<.05, ** p<.01, *** p<.001

변인이었는데, 동조동기는 음주문제 변산 중 40%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성취지위 집단의 경우에는 음주동기를 중 대처동기가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대처동기는 음주문제 변산 중 38%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사교동기도 음주문제 변산 중 14%의 설명량을 더해주는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다.

정체성 영역별 지위 점수의 음주집단간 차이

한 개인 내에서도 정체성 내용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 상태를 보일 수 있어, 음주문제의 정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 내용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연구문제 3)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남자대학생들(N=175명) 중 음주문제 점수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문제성 음주집단(N=55)과 하위 30%에 해당하

는 비문제성 음주집단(N=54)을 구성한 후, 각각의 음주관련 변인들에 대해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표 3) 문제성 음주집단은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 등 모든 음주관련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이들 두 집단이 상이한 음주양상을 보이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념 정체성, 대인 정체성, 전체 정체성 지위 점수들에서 문제성 음주집단과 비문제성 음주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전체-정체성 지위 점수들에서는 전체-폐쇄지위 점수를 제외한 모든 지위 점수들에서 음주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성 음주집단은 전체-혼미지위 점수와 전체-유예지위 점수에서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전체-성취지위 점수에서는 비문제성 음주집단이 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유의

표 3. 음주관련 변인들에 대한 음주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비문제성 음주집단(N=54)	문제성 음주집단(N=55)	t
음주빈도	2.33(0.91)	3.82(0.86)	-8.74***
평균주량	4.28(2.20)	7.75(2.17)	-8.28***
고양동기	2.61(2.31)	7.39(2.52)	-10.36***
대처동기	3.04(3.20)	8.43(3.60)	-8.28***
동조동기	5.52(3.56)	8.29(3.30)	-4.23***
사교동기	8.09(3.10)	11.77(1.56)	-7.82***
음주문제	2.57(2.11)	27.88(8.32)	-22.04***

*** p<.001

표 4. 관념, 대인 및 전체 정체성 지위점수의 음주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비문제성음주집단(N=54)	문제성음주집단(N=56)	t
관념-혼미	24.53(6.61)	27.87(5.13)	-2.92**
관념-폐쇄	17.57(5.24)	18.98(6.23)	-1.28
관념-유예	25.28(4.70)	28.35(4.88)	-3.34**
관념-성취	32.24(6.33)	28.61(5.53)	3.18**
대인-혼미	19.48(5.12)	21.26(6.04)	-1.63
대인-폐쇄	17.45(4.69)	19.07(5.51)	-1.64
대인-유예	24.80(4.10)	28.93(4.88)	-4.78***
대인-성취	29.24(5.97)	28.64(5.00)	0.56
전체-혼미	42.83(10.47)	47.85(10.37)	-2.52*
전체-폐쇄	34.70(9.33)	38.05(11.20)	-1.70
전체-유예	50.07(7.42)	57.27(8.58)	-4.68***
전체-성취	61.48(10.63)	55.69(10.40)	2.88**

* p<.05, ** p<.01, *** p<.001

하게 더 높았다. 그런데 전체-혼미지위 점수와 전체-성취지위 점수에서의 음주집단간 차이는 주로 관념 정체성 영역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 같다. 그리고 유예지위 점수는 관념 정체성 영역과 대인 정체성 영역 모두에서 음주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관념 정체성과 대인 정체성 각각의 내용영역들 중 어디에서 음주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체성 내용영역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

표 5. 관념 정체성 내용영역별 지위점수의 음주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비문제성음주집단(N=54)	문제성음주집단(N=56)	t
직업-혼미	4.54(2.13)	5.48(1.94)	-2.44*
직업-폐쇄	3.67(1.65)	4.41(1.90)	-2.19*
직업-유예	7.22(2.33)	7.52(1.86)	-0.74
직업-성취	8.50(2.54)	7.43(2.41)	2.27*
정치-혼미	6.62(2.66)	7.11(2.35)	-1.01
정치-폐쇄	3.81(1.49)	4.18(1.78)	-1.16
정치-유예	6.39(1.46)	7.13(1.42)	-2.69**
정치-성취	8.39(1.72)	7.77(1.94)	1.78
종교-혼미	7.09(3.58)	8.32(2.80)	-2.00*
종교-폐쇄	4.78(2.13)	4.84(2.24)	-0.15
종교-유예	4.61(2.48)	5.57(2.05)	-2.21*
종교-성취	6.96(3.17)	6.07(2.29)	1.68
생활양식-혼미	6.28(2.05)	7.00(1.84)	-1.94
생활양식-폐쇄	5.31(1.84)	5.44(1.83)	-0.35
생활양식-유예	7.06(1.80)	8.05(1.80)	-2.91**
생활양식-성취	8.39(1.99)	7.13(1.96)	3.36**

* p<.05, ** p<.01

표 6. 대인 정체성 내용영역별 지위점수의 음주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비문제성음주집단(N=54)	문제성음주집단(N=56)	t
성역할-혼미	5.36(2.12)	6.18(2.14)	-2.01*
성역할-폐쇄	5.65(1.90)	5.86(1.79)	-0.59
성역할-유예	6.83(1.96)	6.80(1.83)	0.08
성역할-성취	7.33(1.92)	6.80(1.91)	1.45
우정-혼미	3.78(1.37)	4.40(1.91)	-1.96
우정-폐쇄	5.07(1.65)	5.38(1.51)	-1.02
우정-유예	6.85(1.96)	7.50(1.93)	-1.75
우정-성취	7.56(1.89)	7.14(1.67)	1.22
여가-혼미	5.62(2.54)	5.45(2.23)	0.37
여가-폐쇄	3.30(1.30)	3.88(1.83)	-1.91
여가-유예	6.04(1.90)	7.54(1.87)	-4.17***
여가-성취	7.72(2.32)	8.04(2.00)	-0.76
이성교제-혼미	4.93(2.39)	5.25(2.35)	-0.72
이성교제-폐쇄	3.47(1.72)	3.88(1.90)	-1.16
이성교제-유예	5.07(2.08)	7.02(2.11)	-4.86***
이성교제-성취	6.63(2.37)	6.65(2.15)	-0.04

* p<.05, *** p<.001

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관념 정체성에서는 모든 영역들에서 음주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제성 음주집단은 직업-혼미, 직업-폐쇄, 정치-유예, 종교-혼미, 종교-유예, 생활양식-유예지위 점수에서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직업-성취와 생활양식-성취지위 점수에서는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더 낮았다. 그리고 대인 정체성 영역에서는 성역할, 여가 및 이성교제 영역에서 음주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역할-혼미, 여가-유예, 이성교제-유예지위 점수 모두에서 문제성 음주집단이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청년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시절은 독립적인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발달과업에 직면하

는 시기이며 동시에 본격적인 음주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정체성 발달과 음주는 서로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리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남자대학생들 각자가 어떤 정체성 지위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음주양태나 음주동기 그리고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른가(연구문제 1)를 살펴본 결과, 음주문제를 제외하고는 정체성 지위 상태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체성 지위 상태에 따라 음주경험 빈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Jones와 Hartmann(1988)의 연구 그리고 음주빈도와 맥주 소비량에서의 차이를 보고한 Bishop 등(199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연령대 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다. 즉 Jones와 Hartmann(1988)의 연구 대상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음주가 합법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 지위 상태가 이들

의 음주 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정체성 폐쇄지위의 청소년들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주경험 빈도를 보였을 수 있다. 또한 Bishop 등(1997)의 연구에서는 비록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들 또한 연령 범위가 17 ~ 19세(평균 18.45세)로 법정 음주허용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 1학년 학생들이어서 마찬가지로 정체성 지위 상태가 나름대로 음주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정체성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음주빈도와 맥주 소비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음주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대학생들이었고 더구나 음주를 부추기고 강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하여 대학생의 음주빈도나 평균주량 및 음주동기에서 정체성 지위 상태가 그다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음주문제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동기에서는 정체성 지위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지위에 따라 음주문제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의 양이나 빈도와는 별개로 정체성 성취수준이 음주문제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정체성 지위 집단들 중 현재 정체성유예 상태에 있는 남자 대학생들이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위험 집단임이 드러났다. 이는 현재 적극적인 정체성 탐색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음주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 탐색의 촉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결과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체성 폐쇄 집단이 정체성 성취 집단에 비해 음주문제의 정도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인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정체성 유예 집단은 적극적인 탐색의 시기를 거친 후 장차

정체성 성취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이들이 현재 나타내 보이는 음주문제의 정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지만, 정체성 폐쇄 집단의 남자 대학생들은 이미 특정한 가치나 신념에 관여를 하고 있고 보다 건전한 대안들을 탐색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이들이 부모를 비롯한 권위적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음주에 관한 그릇된 사회규범에 강력한 동조를 보이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이야말로 잠재적으로 음주문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군일 수 있다.

반면 정체성 성취 집단은 음주문제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가장 성숙한 수준으로 정체성 발달이 이루어지면 음주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체성 지위와 음주문제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재의 정체성 유예지위 상태가 음주문제의 정도를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심각한 음주문제로 인해 정체성 유예 상태에서 정체성 성취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Erikson의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은 항상 적극적인 긴장과 지속적인 재평가의 요소 즉 일시적인 관여와 대안들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고 있다 (Valde, 1996). 또한 정체성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보다는 ‘과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 여러 종단적 연구들(Adams & Fitch, 1982; Waterman, Geary, & Waterman, 1974)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 성취 지위에서 다른 지위들로 되돌아가는 지위 회귀 (status regression) 현상의 발생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 정체성 성취 지위의 남자 대학생들이 음주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정체성 지위가 어떻게 변

화해갈지 또 그와 관련하여 음주양상은 어떻게 달라질지는 향후의 장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음주동기에 있어 정체성 지위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각각의 정체성 지위 집단별로 어떤 동기로 술을 마셨을 때 음주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연구문제 2)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정체성 지위 상태에서 슬픔이나 분노,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할 때 음주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폐쇄 지위 집단에서는 고양동기가 음주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기분전환이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자 음주를 할 때 자칫 자체력을 잃고 음주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네 가지 정체성 지위 집단들 중 음주문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체성 유예 지위 집단의 경우에는 동조동기가 음주문제의 변산 중 40%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이것은 정체성 유예 지위의 남자대학생들이 본인은 술을 마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이나 인정을 얻기 위하여 또는 따돌림당하지 않기 위하여 술을 마실 때 음주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 지위 상태에 따라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실 때 상대적으로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아는 것이 음주문제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rcher(1982)는 한 개인 내에서도 정체성 내용 영역별로 서로 다른 정체성 지위 상태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음주문제가 심각한 남자대학생들과 비교적 음주문제가 적은 남자대학생들이 정체성 내용 영역들 중 어디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연구문제 3)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제성 음주집단은 관념-혼미, 관념-유예, 대인-유예지위 점수에서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관념-성취지위 점수는 비문제성 음주집단이 문

제성 음주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관념-성취지위 점수에서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Jones 등(1989)의 결과와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본 연구에서의 비교대상과는 달리 Jones 등(1989)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상 학생 집단과 술을 포함한 다른 약물의 남용 때문에 기숙하면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동년배의 임상집단을 비교한 것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유예지위 점수는 거의 대부분의 정체성 내용 영역에서 음주집단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집단은 관념-정체성 영역에서 정치-유예, 종교-유예 및 생활양식-유예지위 점수, 그리고 대인 정체성 영역에서 여가-유예와 이성교제-유예지위 점수에서 비문제성 음주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예지위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혼미, 종교-혼미 및 성역할-혼미지위에서도 문제성 음주집단은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직업-성취와 생활양식-성취에서는 비문제성 음주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남자대학생들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 및 직업의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켜 정체성 성취수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음주문제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체성 발달과 관련하여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 중 젊은이들로 하여금 발달 자산(developmental assets)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 ‘발달 자산 접근(the developmental assets approach)’이 대학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듯하다.

발달 자산 접근에서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자산과 강점은 구축하고 증진시켜주면, 젊은이들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Leffert, Benson과 Roehlkepartain(1997), Hogan, Gabrielsen,

Luna, & Grothaus, 2003에서 재인용)은 발달 자산으로서 개인 외적 자산과 개인 내적 자산에 해당하는 40가지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 중 네 가지 내적 자산의 영역들은 학습에 관여(Commitment to Learning;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성취동기 등), 긍정적 가치(Positive Values; 개인적 책임감의 수용, 음주질제가 중요하다는 신념 등),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ies; 공감능력, 사교기술, 길등해결기술, 동료의 부당한 압력과 위험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등) 및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 개인적 통제력, 자존감, 목적의식, 긍정적 미래관 등)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개인 내적 자산의 증진을 목표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예: 자아성장프로그램,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비록 이들 프로그램들이 음주문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내적 자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체성 발달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로 말미암은 정체성 성숙은 음주문제의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록 모두가 대학생 신분이기는 하나 연령 범위가 18세에서 27세로 그 폭이 넓고 또 23세 이상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대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례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과제이며, 더불어 대학생들과 음주허용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보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록 본 연구에서 정체성 유예지위의 남자 대학생들이 음주문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몇 가지 추론 가능한 이유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왜 정체성 발달수준에

따라 음주문제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들이 정체성 발달과 음주문제 발생 위험성간의 관계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신행우 (1999).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05-122.
- 신행우 (2001).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EOM-EIS2)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137-152.
- 신행우,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 77-92.
- 장승옥, 윤혜미, 이해경, 최현숙 (2001). 대학생 음주 실태와 정책대안. *한국음주문화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의 음주문화와 알코올 문제 예방 및 치료, 재활」* 자료집, 13-24.
-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고복자, 정재훈, 박종순 (2000). 대학사회의 문제음주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s: A cross-sequenti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74-583.
- Archer, S. L. (1982). The lower age boundaries of ident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1551-1556.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ew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ishop, D. I., Macy-Lewis, J. A., Schnekloth, C. A., Puswell, S., & Strussel, G. L. (1997). Ego identity status and reported alcohol consumption: a study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20, 209–218.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orton, New York.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New York.
- Glikzman, L., Adlaf, E. M., Demers, A., & Newton-Taylor, B. (2003). Heavy Drinking on Canadian Campus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 17–21.
- Hogan, J. A., Gabrielsen, K. R., Luna, N., & Grothaus, D. (2003). *Substance Abuse Prevention: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Allyn and Bacon.
- Jones, R. M., & Hartmann, B. R. (1988). Ego identity: developmental differences and experimental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1, 347–360.
- Jones, R. M., & Hartmann, B. R., Grochowski, C. O., & Glider, P. (1989). Ego identity and substance abuse: A comparison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treatment with adolescents in scho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625–631.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y*, 23, 433–456.
- Logan, R. (1978). Identity diffusion and psychosocial defense mechanism. *Adolescence*, 13, 503–508.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1968). The case history of a construct: Ego identity status. In E. Vinache (Ed.), *Readings in general psychology* (pp. 325–332). New York: American Book Co.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Wiley.
-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1–21). New York: Springer-Verlag.
- Meeus, W. (1996). Studies of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569–598.
- Preboth, M. (2002). NIAAA report on prevention of college drinking. *American Family Physician*, 65(12), 2595–2596.
- Valde, G. A. (1996). Identity closure: A fifth identity statu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7(3), 245–254.
- Waterman, A. S., Geary, P. S., & Waterman, C. K. (1974).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from the freshman to the senior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387–392.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 Moeykens, B.,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AMA*, 272, 1672-1677.
- Wechsler, H., & Issac, N. (1992). 'Binge' Drinkers at Massachusetts Colleges. *JAMA*, 267, 2929-2931.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development and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male students

Haeng-Woo Shin

Dep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development and drinking problems. Four identity status (diffusion, foreclosure, moratorium, and achievement) group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alcohol use,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results came out only due to the degree of drinking problems. The moratorium group was most serious and at risk in the degree of drinking problems, but the achieved group reported relatively lower degree of drinking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each identity status groups had different drinking motives resulting various drinking problems. Compared with non-problem drinkers, problem drinkers were higher in ideological diffusion, ideological moratorium, and interpersonal moratorium scores. On the other hand, non-problem drinkers reported higher ideological achievement score than problem drinkers. Finally sugges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development and drinking problems and the usefulness of applying 'the developmental assets approach' for alcohol abuse prevention were provided.

Keywords: identity status, drinking motives, drinking problems, the developmental assets approach